

2008년 4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중등학교 음악교육에서
오카리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이 원 미

중등학교 음악교육에서
오카리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Ocarina in Middle School Music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 교육전공

이원미

중학교 음악교육에서
오카리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 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음악교육과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원미

이원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한 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 영 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계 인

2008 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7
1. 오카리나의 유래	7
2. 오카리나의 연주기법	12
3. 오카리나의 종류	16
III. 설문 결과 분석 및 효과적인 교수·학습지도안	21
1. 설문결과	21
2. 설문결과의 해석	27
3. 효과적인 오카리나 교수·학습 지도안	31
IV. 결론 및 제언	40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1> 오카리나 선수학습 여부	21
<표 1-2> 오카리나를 배우게 된 동기	22
<표 2> 오카리나 학습 전에 학습 경험이 있는 악기	23
<표 3> 오카리나는 학습하기 쉬운 악기인가?	24
<표 4> 오카리나와 리코더의 비교	25
<표 5> 오카리나의 소리	26
<표 6> 오카리나 학습 중 어려운 점	27
<표 7> 오카리나와 리코더의 운지법과 텅잉 비교	28
<표 8> 오카리나와 합주	29
<표 9> 오카리나 수행평가의 난이도	30

그림 목차

<그림 1> T자형 오카리나	14
<그림 2> 영국식 오카리나	15
<그림 3> 남미식 오카리나	15
<그림 4> 동양의 오카리나 ‘훈’	16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Ocarina in Middle School Music

Lee, Won - Mi

Advisor: Prof. Pahk, Kay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the courses of change are drastic, shifting nearly everything in the society at a fast pace in different aspects. So does the way of thinking and expressing oneself. With this movement, the changes in the curriculum and method are overtly needed. Music education has address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musicality and autonomy through different musical activities. Aside from a recorder and a short bamboo flute, the most popular tool in instrument education, the new instrument should be developed, and Ocarina is apt to fulfill such functions.

The benefits of applying ocarina in music education are listed as following. First, the size of ocarina is small enough for students to handle with. Ocarina is easy to make sounds that students can achieve learning in a short period with a little effort.

Second, ocarina can easily express one's own feelings and emotions. In terms of volume, ocarina has the considerable amount of sounds than that of a short bamboo flute or recorder, allowing emotions to be expressed more clearly and fully.

Third, ocarina has the sound of pureness and the tone of earthy-sounding. So, it can motivate learners and be used as a tool

for various music classes along with singing or learning other instruments. Besides, ocarina is made of environmental-friendly material, mud, which could at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udents' affective factors such as emotions.

Fourth, in teaching ocarina for lower grade student in secondary school, T-shape ocarina, which has wider range, is more suitable to use than Wrangley one. Alto C key is also preferred in teaching ocarina as it can make sound of lower La(a) key, letting students play a variety of musical pieces.

Fifth, similarities in the ways of playing technique between ocarina and recorder make it easier to play, but with the difference in range and tone as well as difficulty in producing proper scale, it is effective to teach from the scale of Sol(G) to La(A), Ti(B), Do(C) and then the lower key Fa(F).

Sixth, ocarina goes well with soft musical pieces as well as five scale musical pieces such as creative nursery songs, mother goose songs. Also effective in playing folk music of other countries.

Lastly, ocarina, a ceramic instrument made out of clay, is easily breakable, yet it is environmental-friendly instrument, and with its rich volume, it is also effective in teaching outdoor activities.

The thesis has gained the applicable value of ocarina in music class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educational advantages of learning ocarina through classroom teaching and survey done for 7th grade. The class allowed learners to play a variety of songs from the easiest piece to the main theme on the textbook. Based on that results has the teaching plan been written and aimed to give positive influence to learners. The Research aims to see overall music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and how much effects can the education of ocarina along with instrumental music teaching give to students.

중학교 음악교육에서 오카리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전공 이원미

지도교수 박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급변하고 다양화되어가는 시대이다. 이에 발맞추어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자기표현도 빠른 속도로 변하며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육과정 또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음악과에서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성과 자율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세계화와 다양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가락악기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리코더와 단소를 벗어나서 새로운 악기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오카리나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여겨진다. 오카리나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카리나는 크기가 작아서 학생들이 다루기에 알맞고 운지법과 소리 내는 법이 쉽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연주 할 때에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음악적 표현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음량 면에서도 단소, 리코더

보다 월등한 울림량을 보임으로 명료한 기악학습을 유도하기에 용이하다.

둘째, 오카리나의 맑고 순수하며 인성에 가까운 자연의 음색은 가창이나 다른 악기와도 잘 어울리며 학습의 동기유발을 일으키며 다양한 수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재질인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정서 발달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오카리나 지도에 있어서는 랭글리정보다는 음역이 넓은 T자형이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고, 알토 C키의 경우 낮은 라(a)까지 소리를 낼 수 있어 더욱 다양한 악곡을 연주할 수 있다.

넷째, 오카리나 리코더와 연주방법 면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어 배우기 쉬우나 악기마다 조성을 달리하여 음역과 음색에 차이가 있고, 바른 음정으로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중음 운지인 솔(g')을 기준으로 라(a'), 시(b'), 도(c'')를 소리 낸 다음에, 아래음인 파(f'), 미(e')를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오카리나는 음색이 부드럽고 서정적인 곡 표현에 적합하며 단조의 곡이나 전래동요, 창작 동요 등의 5음 음계로 구성된 음악과 다른 나라의 민속음악의 연주에도 효과적이다.

일곱째, 오카리나는 흙을 구워 만든 도자악기이므로 깨지기 쉬운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재질이 자연 친화적이고, 음량이 풍부하여 야외학습 시에도 효과적이다.

이 논문은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오카리나의 교육적 활용장점을 유형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수업에 적용 가능한 효용성의 실태를 얻었다. 수업진행은 귀에 익숙한 쉬운 곡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제재곡까지 다양한 곡을 연주하

였다. 그리고 결과를 활용하여 지도안을 작성하여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을 꾀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중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음악교육을 살펴보고 오카리나와 병행한 기악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가생활의 양과 질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하였다. 여가패턴이 개인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바뀌었고, 여가생활도 세분화·다양화·고급화되면서 관련 상품시장도 급격히 팽창하였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여가생활에 익숙한 ‘여가세대’가 급격히 부상하였다. 주로 20~30대 초반의 젊은 ‘여가세대’는 일상생활 중 여가에 큰 비중을 두면서 여가패턴도 적극적·모험적인 체험과 자기계발 및 창조성 등과 같은 가치 창조적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오늘날의 여가문화의 특징을 보면 자연친화적 여가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도심의 폐쇄된 공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찌든 도심생활에서 벗어나 쾌적한 삶을 즐기면서 잃었던 건강을 되찾으려는 건강중심의 자연친화적 여가생활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¹⁾

물질생활이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지적욕구는 점점 더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문화적 목표가 생활의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여가생활도 개성이나 창조성의 발휘를 통해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유형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전업주부들 사이에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 가사에 얽매어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가치를 재발견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업주부들은

1) 곽한병, 『여가문화론』, 대왕사, 2005, p.315.

헝가족화·소(少)자녀화·가사합리화를 도와주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활성화, 그리고 주택구조의 편리한 변화 등에 힘입어 주부들의 가사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들은 남는 여가시간에 다양한 여가·문화·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교양·창조형 여가와 같이 개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의 목표를 달성하는 유형의 여가생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한편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자연생태체험과 사회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도자기 공방과 유리 공방 등의 체험학습의 장은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각광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카리나를 통해서도 문화·교양·창조형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²⁾

음악교육과 관련된 계발활동은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변화에 맞추어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음악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³⁾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급격한 변화를 통해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취미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현대 음악교육은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함양하도록 창의적인 음악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세계의 변화흐름을 예측하고 앞질러 나갈 수 있도록 적응력을 갖추고 다양한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2) 곽한병, 『여가문화론』, 대왕사, 2005, p.315.

3) 윤정아. “계발활동 프로그램으로서의 오카리나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p.3.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 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⁴⁾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의 활동 영역 중 기악에서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할 수 있는 목표설정이 되어 있다. 이에 오카리나는 기존의 기악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단소나 리코더보다 7차 교육과정의 목표에 근접한 악기임은 물론이며 쉬운 운지법과 뛰어난 음색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악기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켜 동기를 유발하고, 음악의 기초 능력 신장과 음악적 표현 능력 향상을 통하여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오카리나를 선정하였다. 이에 오카리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오카리나를 교실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자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00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2학기 수업 시간에 오카리나를 지도하였다. 관할 교육청에서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카리나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게 하는 목표에 따라 기악영역 수행평가에 반영하였다. 오카리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간단한 악곡은

4)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육부 고시 제시 1997-15호)』,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88.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집을 배부하여 참고하게 하였다. 1학기에 악기 배분 시에 자료집을 통해 운지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였고 간단한 악곡을 선정하여 방학 중 과제로 학습하게 하였다.

가. 본 연구는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음악수업 시간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나. 본 연구에서 연구와 설문 대상을 5개 학급으로 제한한다.

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에서 지급된 T자형 오카리나를 중심으로 플라 스틱 알토 C key를 이용하여 지도한다.

라. 연습곡의 선정은 교육청에서 지급된 소책자와 오카리나 관련된 부교재를 이용하여 각 단계에 맞는 곡을 선정한다.

(2) 연구내용

이 설문의 목적은 오카리나에 대한 학교 기악교육에서 효용성과 수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오카리나 학습을 실시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여학생 5개 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였기에 이를 시행하였다.

이 설문은 총 189명의 여학생들에게 시행되었다. 오카리나에 대한 교육적인 넓은 관점과 성향에서 조사됨으로 보편적 효용성과 수용방안 및 활용에 유용함을 파악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으며, 문항의 개수는 아래와 같이 총 10문항으로 하였다.

1. 초등학교에서 오카리나에 대해 학습하였는가?
2. 오카리나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면 배우게 된 동기는?

3. 오카리나를 학습하기 전에 학습한 경험이 있는 악기는?
4. 오카리나는 학습하기 쉬운 악기인가?
5. 오카리나가 리코더보다 쉬운 악기라고 생각하는가?
6. 오카리나의 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7. 오카리나를 처음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8. 오카리나의 운지법과 텅잉이 리코더보다 쉽다고 생각하는가?
9. 오카리나가 다른 악기와 합주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10. 오카리나로 실기시험을 볼 때 난이도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쉽고 재미있게 오카리나를 연주할 수 있게 지도안을 작성하여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오카리나의 유래

오카리나란 악기는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피리이다. 그 시작은 인간이 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악기가 아닌 한 음 내지 두음 정도 내는 주술적인 성격을 갖는 악기였으며, 형태 또한 고대 마야유적에서 발견 되는 것을 보면 새 또는 거북이 등 여러 동물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대의 오카리나는 한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이 발생한 여러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유물로 발견되고 있다.⁵⁾

오카리나는 미국과 유럽 지역의 아동용 악기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 다양한 모양을 갖춘 오카리나가 민속음악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악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특히 코스타리카 지역에서 인기가 있다. 국립 박물관에 18가지 색채를 띤 곡을 연주할 수 있는 6개의 구멍이 있는 샘플을 소장하고 있다. 이 악기가 콜롬비아에서는 가끔씩 “chirim” 양상블을 늘리기도 하며 과테말라에서는 마야 농부들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는데 전 콜롬비아인 시대에 쓰던 오카리나와 호루라기들은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파나마에서는 Guaymi(구아이미) 인디언에 의해 연주되고, 페루에서는 열대우림 지역의 Lawa(라와)족과 Bora(보라)족 인디언들이 밀랍이나 진흙으로 된 오카리나를 연주한다.

5) 박봉규, 「즐거운 오카리나 완성」, 삼호뮤직, 2002, p.8.

오카리나는 또한 동부 유럽에서도 인기가 있는데 계란형이나 당근 모양 같은 악기로 손가락 구멍이 10개 있는 것도 있고, 구멍이 한두 개 있는 동물모양을 한 오카리나도 있다. 물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악기가 아닌 한두음 정도 내는 주술적인 성격을 갖는 악기였으며 형태도 고대 마야유적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거북이나 새 등 여러 동물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중남미에서 발전이 되던 오카리나는 스페인 등에 의해서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이 정복되어 가면서 유럽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1527년 Valladolid에서 아즈텍의 연주자와 무회에 의해 선을 보인 연주 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이 유명해져 유럽 각지를 돌며 공연하여 이때부터 오카리나가 유럽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양한 모양을 갖춘 오카리나가 민속 음악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 악기는 라틴 아메리카 특히 코스타리카 지역과 동부 유럽에서는 구멍이 한두 개 있는 동물모양을 한 오카리나도 있고, 계란형이나 당근 모양 같은 형태로 손가락 구멍이 10개 정도 있는 것도 있다.

남미 지역에는 대체로 둥근 모양에 3개 내지 4개의 구멍을 가진 형태의 오카리나가 주로 쓰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훈이라는 향아리 형태의 오카리나가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이집트의 벽화나 아프리카 원주민에게서도 역시 오카리나라 할 수 있는 악기를 찾아볼 수 있다.⁶⁾

오카리나가 현재 T자 형태의 악기로 발전된 것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19세기 중엽 이탈리아 부드리오(Budrio) 지방에서 살던 주세페 도나티(Giuseppe Donati)라는 사람이 지금과 같은 넓은 음역과 반

6) 윤정아. “계발활동 프로그램으로서의 오카리나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 교육대학교, p.3.

음을 낼 수 있는 오카리나를 처음 만들게 되었는데, 그 완성된 모양이 마치 거위와 같다고 하여 Ocarina(어린 거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도나티 이후 많은 제자들과 견습생들을 거치면서 오카리나의 성능과 제작 방식이 많이 발전하였다. 물론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앞선 도자기 기술로 다양한 시도와 악기 제작의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카리나란 말이 이탈리아어로 어린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카리나가 12구멍 T자 형태의 악기만을 뜻하지 않는다. 초기 악기로서의 흙피리가 거위를 닮아 이름이 붙여진 것이 그 유래지만 지금은 일반 명사화 되어 모든 흙피리를 지칭하고 있다. 오카리나는 흙이라는 개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악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오카리나가 존재하고 있다.⁷⁾

오카리나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카리나는 먼저 배우기 쉬운 악기로 접근성 뛰어나다. 피아노나 플룻, 바이올린 등 여타 악기들을 배울 때에는 최소 몇 년 이상의 레슨을 받아야 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피아노의 경우 몇 년을 배웠어도 피아노 배웠다는 말만 할 수 있을 뿐 동요반주 제대로 칠 수 없다. 그러나 오카리나는 다른 악기에 비해 쉽게 배울 수 있고 단기간에 연주가 가능하다. 운지와 소리내기가 쉬워서 짧은 시간 내에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악기이다(남궁은옥, 2005). 오카리나의 운지는 리코더와 비슷하며 오카리나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음색으로 제대로 된 연주를 하려면 전문레슨을 받아야하고

7) 박봉규, 「즐거운 오카리나 완성」, 삼호뮤직, 2002, p.8.

꾸준한 연습시간이 필요하다.⁸⁾ 오카리나 키별 종류 중 알토C나 소프라노 C키, 소프라노 G키, 소프라노 F키는 쉽게 연주가 가능하나 베이스 키는 악기가 크기 때문에 손가락이 커야하고 재빠른 운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악기의 특성상 휴대가 간편하다.⁹⁾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토C키나 소프라노C키, 소프라노 G키, 소프라노 F키의 오카리나는 한 손으로 쥘 정도의 크기이고, 조금 더 크지만 알토 C키 역시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고 다닐 정도로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쉽게 꺼내어 연주할 수 있다. 또 오카리나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디자인이 다양하다.¹⁰⁾ 국내에서는 T자형 오카리나와 랭글리형 오카리나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다양한 오카리나의 종류를 취미로 수집하는 수집광도 생겼다. 오카리나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연주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음색에 따라 오카리나를 선택해서 연주할 수 있다.

둘째, 오카리나의 재질은 흙으로 되어있어서 자연친화적이 악기이다.¹¹⁾ 흙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천연의 자연재로서 자연의 생명력을 갖고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 현대에 들어 황토는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자연재의 물리적 특성을 인하여 인간의 심리적 감흥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유지시켜줄 것이다.¹²⁾ 오카리나는 흙과 음악을 조화롭게 빚어

8) 이은성, “도예인의 손길이 빚어내는 천상의 소리”, 『음악교육신문』, 제353호, (2006, 4, 5).

9) 이지향, “초등음악교육을 위한 오카리나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2005, p.20.

10) 박봉규, 「즐거운 오카리나 완성」, 삼호뮤직, 2002, p.9.

11) 남궁은옥, “교실악기로서 오카리나 활용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5, p.3.

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적인 환경에서 TV와 기계음과 전자음에 익숙한 현대인-특히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다.¹³⁾

셋째, 오카리나는 올바른 정신함양에 좋은 악기이다. 현대에 들어와 인간은 급속하게 발달한 과학기술문명의 혜택에 의하여 물질적 풍요를 즐기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혜택은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물질적 혜택을 받기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음악은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¹⁴⁾ 연구에 의하면 음악 감상수업이 청소년들의 우울증을 감소시켜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¹⁵⁾ 합창을 통한 음악교육이 정서적으로 책임감, 협동심, 사회성 등의 심성개발 활동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¹⁶⁾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진정성 음악은 긍정적 정서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며 자극성 음악은 부정적 정서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즉 음악의 유형에 따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말

12) 박병민, “자연친화적 요소를 도입한 보육시설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건국대학교, 2005, p.39-40.

13) 한경희, “생활음악문화에서 오카리나의 인식과 대중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6, p.23.

14) 한경희, “생활음악문화에서 오카리나의 인식과 대중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6, p.24.

15) 권오륜, “음악 감상수업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2001.

16) 박재성, “음악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합창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1.

한다.17)이상들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음악은 우울증을 감소시켜 안정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정서적으로 책임감, 협동심, 사회성 등의 심성개발 활동에서 효과적인 것이고 진정성 음악은 긍정적 정서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

2. 오카리나의 연주 기법

가. 호흡

오카리나를 연주할 때에는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복식호흡이란 배의 근육을 이용하여 횡격막을 신축시키는 호흡방식이다. 반대의 개념으로 가슴 위쪽을 이용하는 것은 흉식호흡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누워 있거나 허리를 굽혔을 때에는 복식호흡을 하며 평상시에는 흉식호흡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복식호흡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 1단계 - 횡격막의 복근을 이용해서 복식호흡을 한다.
- 2단계 - 폐의 모양이 일정한 모양으로 유지된다.
- 3단계 - 목이 넓게 열려 있어야 하며 내뿜는 숨결이 일정하고 따뜻하다.
- 4단계 - 맑고 고르며 파장이 일정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한다.

첫째, 악기를 연주하면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 거친 호흡으로 악기를 연주하지 않도록 한다. 오직 악기를 연주하면서 움직여야

17) 강갑원, “자극성·진전성 음악이 긍정적·부정적 정서의 유발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2.

18) 한경희, “생활음악문화에서 오카리나의 인식과 대중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6, p.20-28.

할 부분은 배 부분이다.

둘째, 의자에 앉아서 두 다리를 올리거나 누운 자세에서 두 다리를 올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한 상태에서의 복부 팽창감이 바로 복식호흡 상태의 느낌이다.

셋째, 허리를 90도 앞으로 굽히고 양손을 옆구리에 가져간 상태에서 숨을 들이 마시면 옆구리가 부풀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느낌은 흉식호흡에서 a는 느낄 수 없으며, 허리를 펴도 옆구리가 부풀어 오는 느낌이 있어야 복식호흡 연주에도 쓸 수 있다.

넷째, 악기의 한 음을 길고 고르게 연주해 보자. 보통 악기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의 경우 숨을 유지하는 시간은 4초에서 6초 정도지만 15초까지 하루에 1초씩 늘려보자. 숙련된 연주자의 경우 20초에서 30초는 거뜰하다. 단,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해야 하며 숨이 모자라서 몸을 쥐어 짜듯한 모습을 해서는 안된다. 이 방법을 꾸준히 연습한다면 결국 복식호흡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나. 텅잉 (Tonguing)

혀를 움직이지 않고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보자. 알아듣지 못하는 발음이 나오는데 연주에 있어서도 정확한 연주 발음이 필요하다. 입으로 부는 악기에서는 이러한 연주 발음을 혀의 움직임으로 공기의 흐름을 막아서 표현하는데 이것을 텅잉이라고 한다. 만약 텅잉을 하지 않고서 연주한다면 연주가 관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텅잉을 매일 연습하는 항목으로 삼고서 한다면 멋진 연주기교를 습득할 것이다.

텅잉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기교가 있다.

① 싱글 텅잉 : 가장 기본적인 텅잉이다. to, tu 발음을 내는 것으로

악보에 ‘T’ 로 표시한다. (투)

② 더블 텅잉 : 속도가 빠른 곡에서 쓰이는 텅잉으로 싱글 텅잉의 tu와 혀 안쪽의 ku가 결합된 것으로 ‘TK’ 로 표시한다. (투 크)

③ 트리플 텅잉 : 속도가 빠른 셋잇단음표를 연주하는 데 이용하며 3개의 음군에 쓰인다. tu, ku, tu의 연속음을 내며 ‘TKT’ 로 표시한다. (투 크 투)

④ 플러터 텅잉 : 독일의 작곡가 슈트라우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주법으로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대고 공기를 급속히 보내고 혀를 굴려서 연주한다.

다. 연주 자세

어느 악기나 마찬가지로 오카리나도 더욱 아름답고 좋은 음색을 내기 위해서는 바른 연주 자세가 중요하다.

기본자세는 머리를 바르게 세우고 가슴과 어깨에 힘을 빼며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등을 의자에 기대지 말고 허리와 가슴을 바르게 세우며, 서서 연주하는 경우에는 발을 약간 벌리며 허리를 세우고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한다.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왼발을 약간 앞으로 내민다. 팔꿈치를 몸에 너무 붙이거나 벌리지 말고 호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떼어 준다. 시선은 약간 위쪽을 향하게 하고 보면대의 악보를 볼 때에는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오카리나를 잡을 때는 먼저 손으로 계란을 쥐듯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잡고 운지 구멍은 손가락 끝의 살이 도톰한 부분으로 막는다. 손가락을 땔 때는 운지 구멍에서 항상 2~3cm 정도의 높이로 일정하게 떼어 준다. 운지 구멍을 막지 않고 땔 상태로 준비하고 있을 때도 항상 손가락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오카리나의 구멍을 막는 손가

락의 유연하고 정확한 움직임은 기본적인 소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오카리나는 입술을 ‘에’ 하고 벌린 후에 아랫입술의 바깥쪽에 오카리나의 취구를 살짝 올려놓고 윗입술을 덮어준다. 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텅잉을 잘 할 수 있도록 오카리나의 취구를 이로 물거나 너무 깊이 넣지 않도록 한다.

3. 오카리나의 종류

가. 이탈리아식 오카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오카리나의 형태이다. 도자기 피리가 오카리나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바로 작은 거위 모양을 닮은 이탈리아식 오카리나가 만들어진 이후부터이다. 오카리나 중에서 가장 음역이 넓으며 대개 12~13음 정도의 음역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T자형 오카리나¹⁹⁾

19) <http://ocarina.tistory.com/> 2007년 11월 9일 검색

나. 영국식 오카리나

랭글리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생겼다. 운지를 조합하여 음정을 만들어 내며 한 옥타브 내외의 음역을 갖고 있다.



<그림 2> 영국식 오카리나²⁰⁾

다. 남미식 오카리나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 지역의 전통악기로 화려한 장식과 문양이 특징이다. 한 옥타브 내외의 음역을 갖고 있다.



<그림 3> 남미식 오카리나²¹⁾

20) <http://ocarina.tistory.com/> 2007년 11월 9일 검색

21) <http://ocarina.tistory.com/> 2007년 11월 9일 검색

라. 동양의 오카리나

중국과 한국의 오카리나인 ‘훈’은 일반적으로 오카리나와는 달리 소리를 만들어서 연주한다. 그만큼 연주가 까다롭지만 다양한 음색의 표현이 가능하다. 중국의 훈은 초기에 거위의 알로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의 훈은 문묘등가악(文廟登歌樂)에 편성되고, 음역은 12반음에 의해 얻어지며, 음색은 퍽 우울하다. 흙으로 속이 빈 큰 홍시모양의 악기 몸통을 만들고, 옆면에 모두 5개의 지공을 뚫는다. 《악학궤범》에 의하면 높이는 3촌7푼, 가운데 둘레 8촌, 밑바닥 지름 1촌7푼의 크기이다. 지공은 앞에 셋, 뒤에 둘이며, 뾰족한 꼭지 부분에 취구를 만든다. 고려 예종 11년(1116)에 송나라에서 들여와 아악연주에 사용하였다. 음역은 12율이다.



<그림 4> 동양의 오카리나 ‘훈’ 22)

22) <http://ocarina.tistory.com/> 2007년 11월 9일 검색.

4. 기악교육에서의 오카리나의 중요성

최근 음악교육에서 음악하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8C후반의 지휘 작곡 음악가인 동시에 교육자인 요한 힐러(1728~1804)는 학습자의 음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활용시켜 기정사실을 형식적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악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변성기를 맞이하는 중고등학교의 대다수 학생들은 성악교육 못지않게 기악교육을 통하여 음악적 개념과 악곡을 체험하며 창의적 표현활동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악기를 통하여 악곡을 체험하고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기악 교육은 학교 음악수업의 중요한 활동영역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음악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음악적 개념들을 습득하여 악곡을 연주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양한 음악의 미적 체험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악기는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체험하고 음악적 개념의 형성과 연주기능을 향상 시키며 특히 변성기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모든 음형의 악기연주는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악기의 사용이 학생들의 음질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며, 음의 고저, 음의 길이, 음의 강약에 대해 가르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악기의 사용은 몸 운동을 소리의 세계로 연장시키는 기회는 부여하며 그러한 동작과 소리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기악은 21세기 교육의 가장 큰 화두

인 창의력을 키워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학습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생기를 불러일으키며 성취감에 대한 동기유발을 한다.²³⁾

기악은 가창과 함께 음악적인 자기표현의 한 수단으로서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며, 적절한 기악 체험은 음악적 자신감을 갖게 해 주고 나아가 음악적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악기의 발음 조작 과정 자체에서 갖게 되는 학습자의 흥미는 그대로 기악에 대한 동기유발로 이어지며, 가창표현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음악적 의욕과 만족을 경험하게 해 준다.²⁴⁾

악기 연주는 다양한 형식과 기법,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독주곡이나 중주곡, 합주곡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표현하는 음악 행위이다. 이를 통한 학습은 주어진 악곡에 담겨 있는 미적요소와 의미요소를 통찰하고, 악기로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음악적 속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준다. 악곡을 학습하는 것은 그 악곡에 담겨 있는 특정한 현상들을 통하여 개념을 형성하고, 그들 속에서 원리를 발견하며, 획득한 바를 일반화하는 과정으로써 악기를 사용한 악곡 학습은 장단조의 개념, 리듬과 템포의 개념, 셈여림의 개념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추상적인 이해가 아닌 연주를 통한 직접적인 음악적 경험을 하여 음악의 개념을 몸소 체득케 하는 실음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악기 연주는 특정 악기의 주법과 연주의 기능을 습득 향상시키고, 기악 표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현의 원리를 터득하는 기회가 된다. 바른 주법과 관리 방법을 터득하고 풍부한 표현 방법을 익힘으로

23) 유덕희, 『음악교육론』, 개문사. 1983. p.162.

24) 임나래, “효과적인 가야금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연간 교수”,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2006.

써 스스로 만족할 만한 소리로 연주하게 되는 연마의 기회인 것이다.

악기 연주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영위하는 데에 긴요한 한 방식이 될 수 있음을 학생들이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세계를 즉 느낌이나 감정, 정서, 심정을 악기소리에 실어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음악 활동의 개인적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음악 애호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는 데에 바탕이 된다. 이와 같이 기악학습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음악교육을 낳게 하고 보다 풍부한 경험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까지 제공한다. 그러므로 기악학습은 연주기능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 악곡의 표현성을 체험함으로써 음악을 배우고 더 나아가 음악 표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²⁵⁾

기악교육의 중요성은 기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악기연주는 변화 있고 다양한 음악 표현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기악은 음색의 다양성, 넓은 음역, 표현의 다양성, 기교의 다양성 등 큰 표현력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이 가진 신체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표현의 세계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악 학습은 시각이나 청각뿐만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 을 겸하여 음악을 체득시킴으로써 리듬 훈련에 효과적이며 기악은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학습활동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학습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성취감에 대한 동기유발을 한다. 또한 기악학습 시에는 바른 자세·주법을 익히게 하고,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하며,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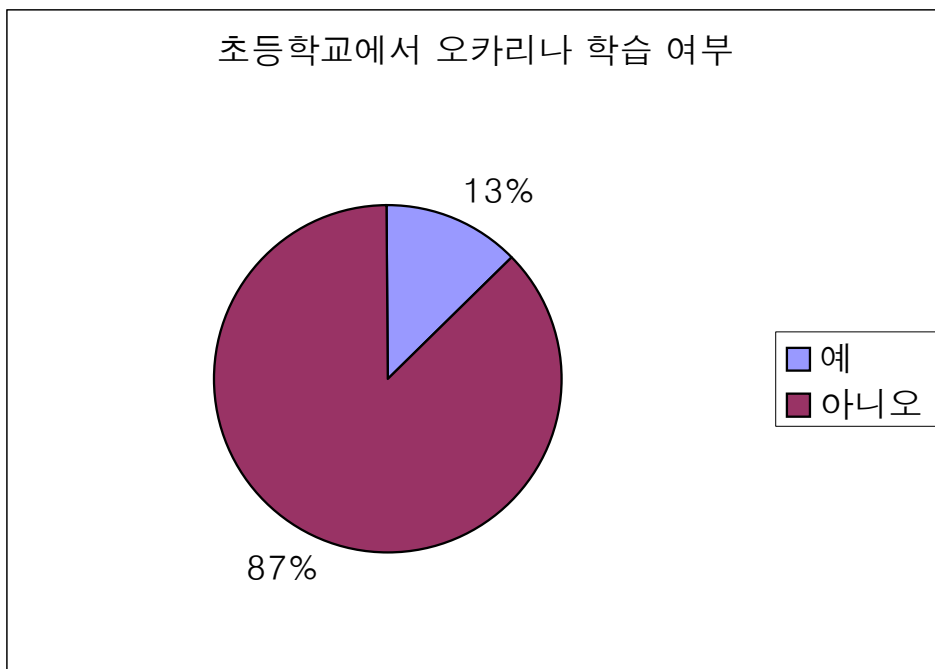
25)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1992, p.85-86.

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간단한 악곡을 외워서 연주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악기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선택하되 앞서 학습한 악기를 연계하여 심화학습이 되도록 하고, 합주에 중점을 둔다. 학습과제를 여러 명의 학생들이 상호 의존하여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수업형태이다. 동료학생을 학습자원으로 활용하여 개별학습자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과 모든 구성원의 개별 책무성, 나아가 적극적인 사회성과 창의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학습방법이다. 이는 학생 각자의 개인 활동과 모둠활동이 같이 이루어져 교사의 수업안내자로서의 역할이 가미된다면 어떤 단원이나 어떤 영역이든지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다만 ‘무임승차효과’, ‘봉효과’, ‘독불장군현상’ 등이 예상되므로 진행과정 중간중간 ‘리더의 윤번제’ 나 ‘돌아가며말하기(Round-Robin)’, ‘동료평가(Peer-Evaluation)’ 등 적절한 교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협동학습의 수업에서의 활용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교수방법과 개인별 그룹별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협동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과에서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모둠으로 창작하여 연주하기, 기악연주하기(중주나 합주) 등이 있다. 협동학습을 할 경우에는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주제를 제시하고, 활동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돕는 촉매제로서의 활동을 해야 한다. 협동학습의 경우 모둠학생들의 역할을 분담시킴으로써 학생들은 스스로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서로 장단점을 인정해주는 학습 분위기를 갖게 한다.²⁶⁾

Ⅲ. 설문 결과 분석 및 효과적인 교수·학습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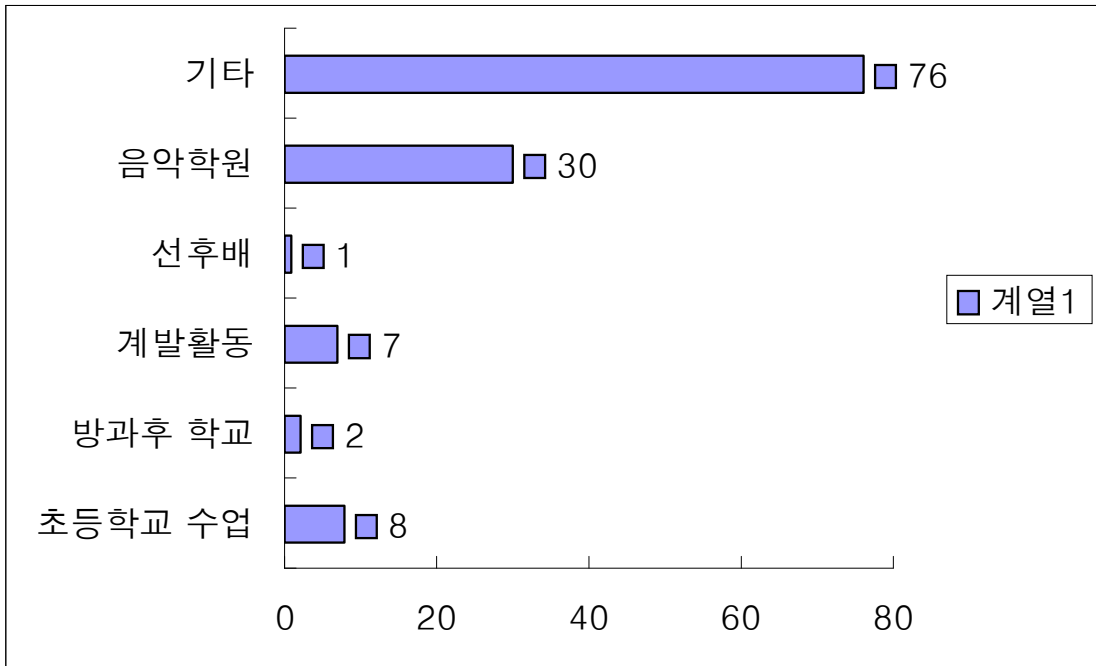
1. 설문결과

“초등학교에서 오카리나를 학습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13%, 학습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87%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와서 처음 오카리나를 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전보다 오카리나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실악기로서는 아직 생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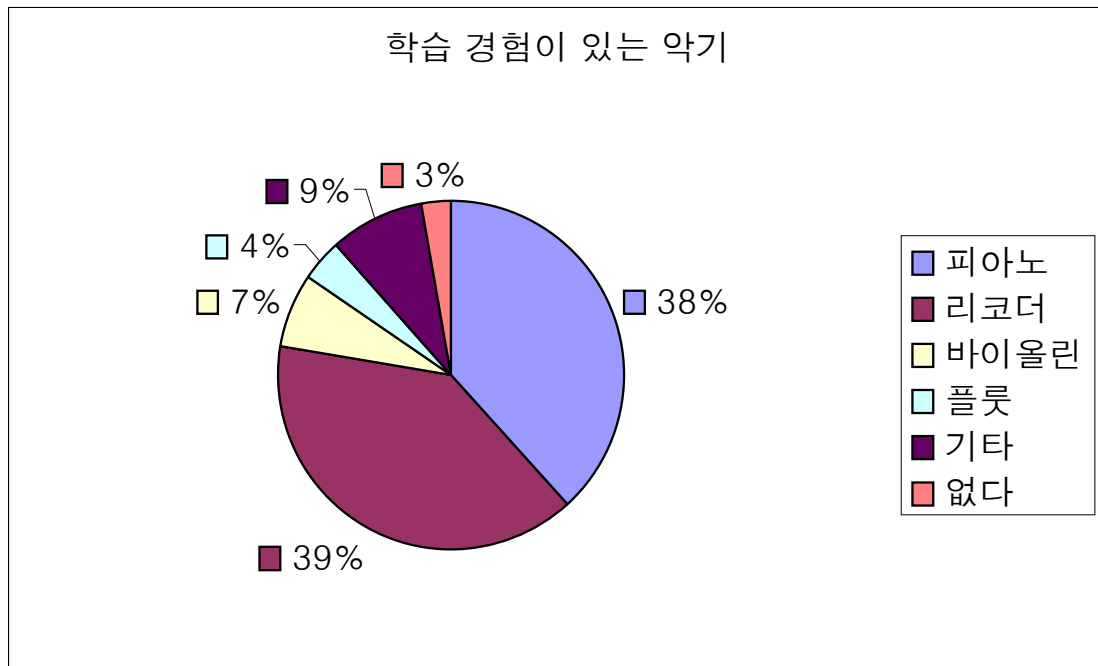
<표 1-1> 오카리나 선수학습 여부

26) 장호,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예술, 2005, p.97.



<표 1-2> 오카리나를 배우게 된 동기

오카리나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배우게 된 동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음악학원을 통해서 경험한 학생이 30%였고 초등학교 수업 중에 학습한 학생이 8%였다. 이를 통하여 요즘에는 피아노 학원이 예전과는 달리 피아노 하나만을 지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 일부 학급에서도 수업시간에 오카리나 학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 계발활동 시간을 통해 학습한 학생이 7%, 방과 후 학교 시간에 학습한 학생이 2%, 선후배를 통해 학습한 학생이 1%였다. 기타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순수하게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학습한 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악기들에 비해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고 의욕이 넘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 소수 의견으로는 형제 자매가 학습하는 것을 보고 어깨너머로 배운 학생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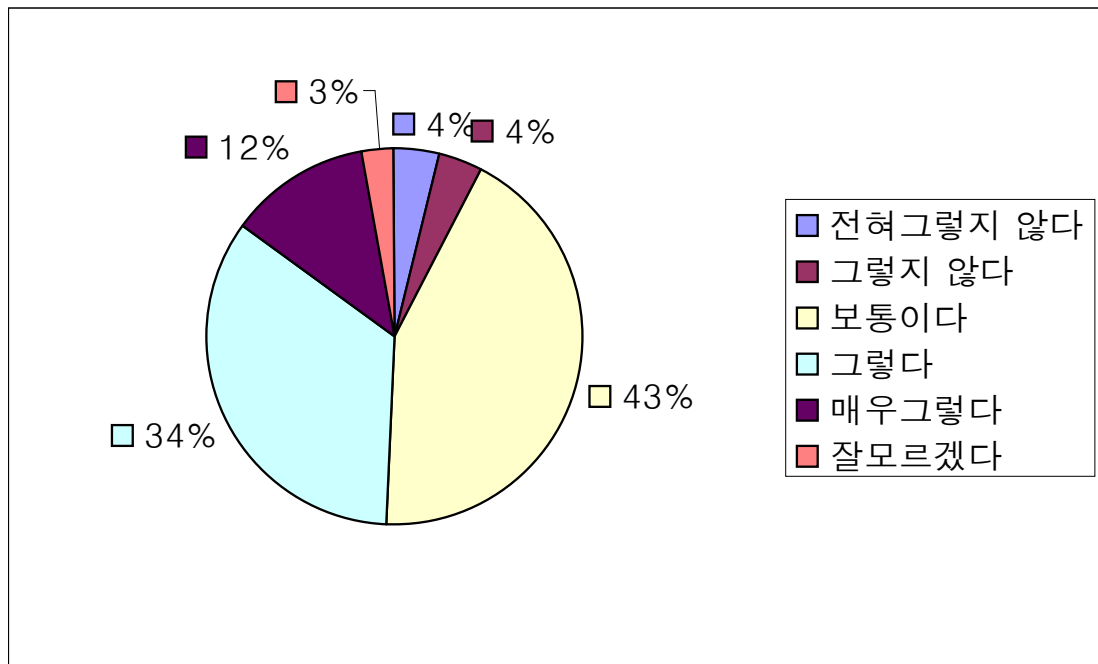


<표 2> 오카리나 학습 전에 학습 경험이 있는 악기

“오카리나를 학습하기 전에 학습한 경험이 있는 악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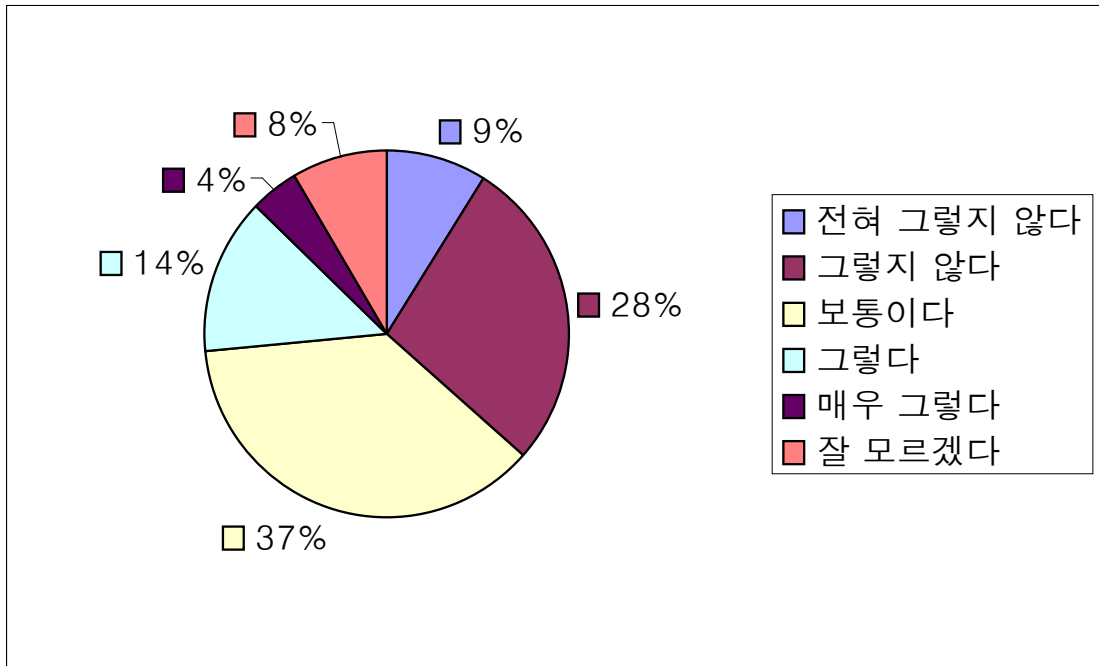
이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악기는 리코더로 39%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리코더와 비슷한 비율로 피아노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8%라고 답하였다. 그 외에 바이올린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7%, 플루트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첼로, 단소, 클라리넷, 비올라 등 다양한 악기를 학습한 학생이 9%로 나왔다. 악기를 학습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3%에 그쳤다.

이를 통하여 오카리나를 학습하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 악기를 학습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선수학습에 의한 결과로 오카리나를 학습할 때 훨씬 수월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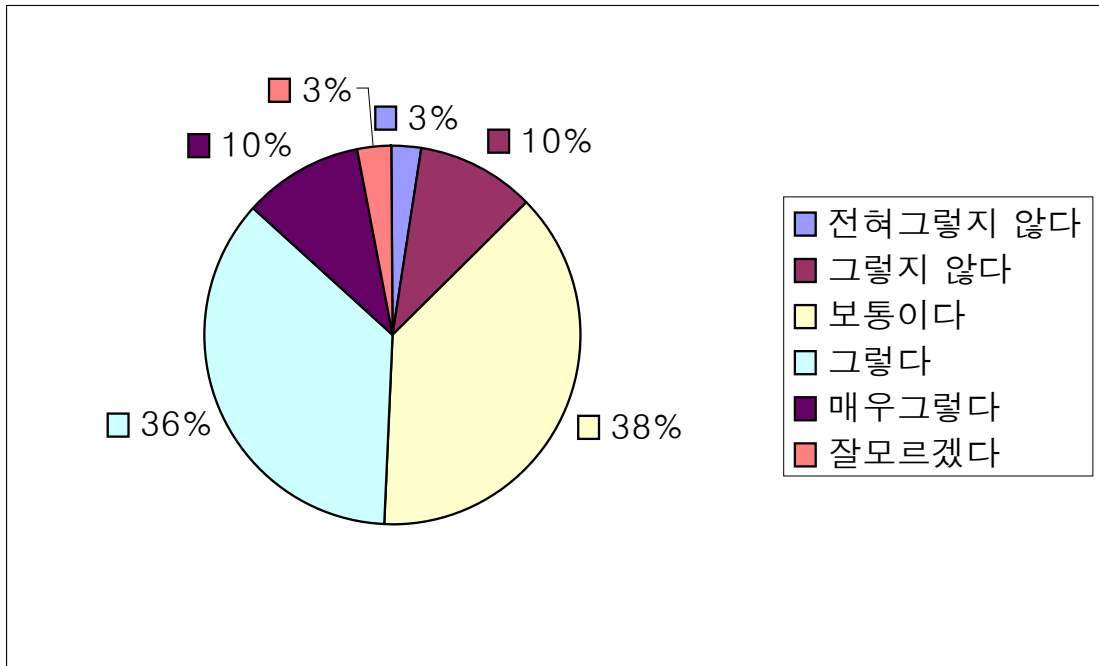
<표 3> 오카리나는 학습하기 쉬운 악기인가?

“오카리나는 학습하기 쉬운 악기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이 43%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라고 답한 학생이 34%, ‘매우 그렇다’ 라고 답한 학생이 12%였다. ‘그렇지 않다’ 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4%였으며 ‘잘 모르겠다’ 라고 답한 학생이 3%였다. 이 결과로 볼 때 오카리나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쉬운 악기임을 알 수 있었다. 쉬운 악기이므로 학습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표 4> 오카리나와 리코더의 난이도비교

“오카리나가 리코더보다 쉬운 악기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 1학기에 수행평가를 실시한 리코더와 비교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그 결과 ‘보통이다’ 라고 답한 학생이 37%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학생이 28%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오카리나가 리코더보다 더 쉽다고 ‘그렇다’ 에 답한 학생은 14%였고 ‘매우 그렇다’ 에 답한 학생은 4%에 그쳤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에 답한 학생이 9%, ‘잘 모르겠다’ 는 의견이 8%로 나왔다. 이 결과를 볼 때 오카리나는 리코더에 비해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악기이지만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악기를 대하므로 쉬운 악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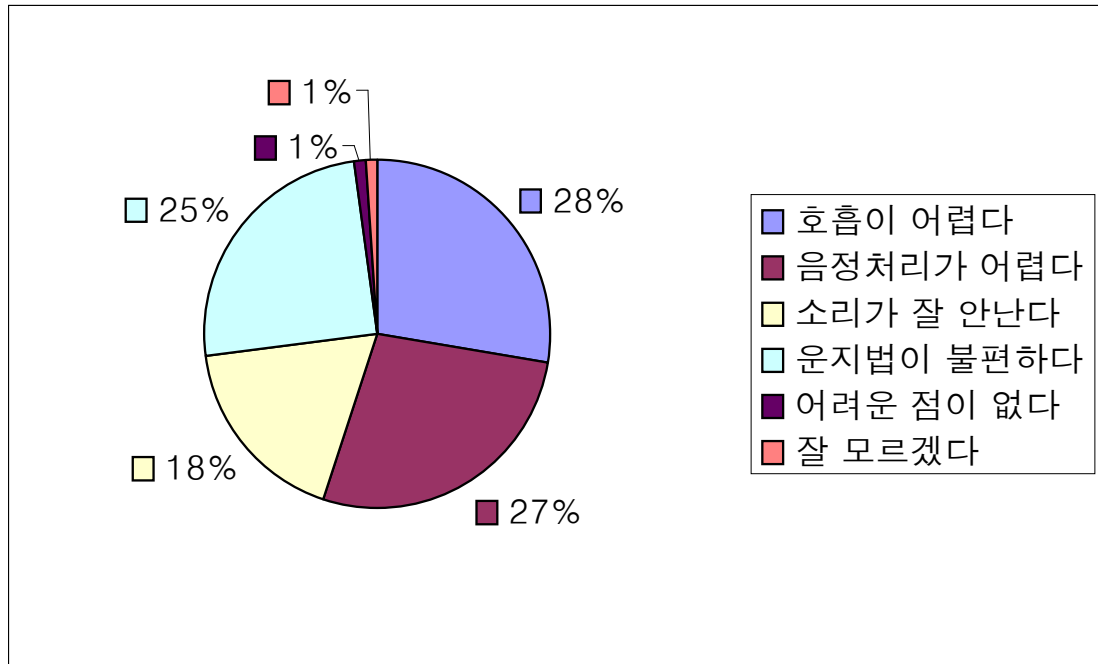
<표 5> 오카리나의 소리

“오카리나의 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오카리나의 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보통이다’ 라고 답한 학생이 38%, ‘그렇다’ 라고 답한 학생이 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오카리나의 소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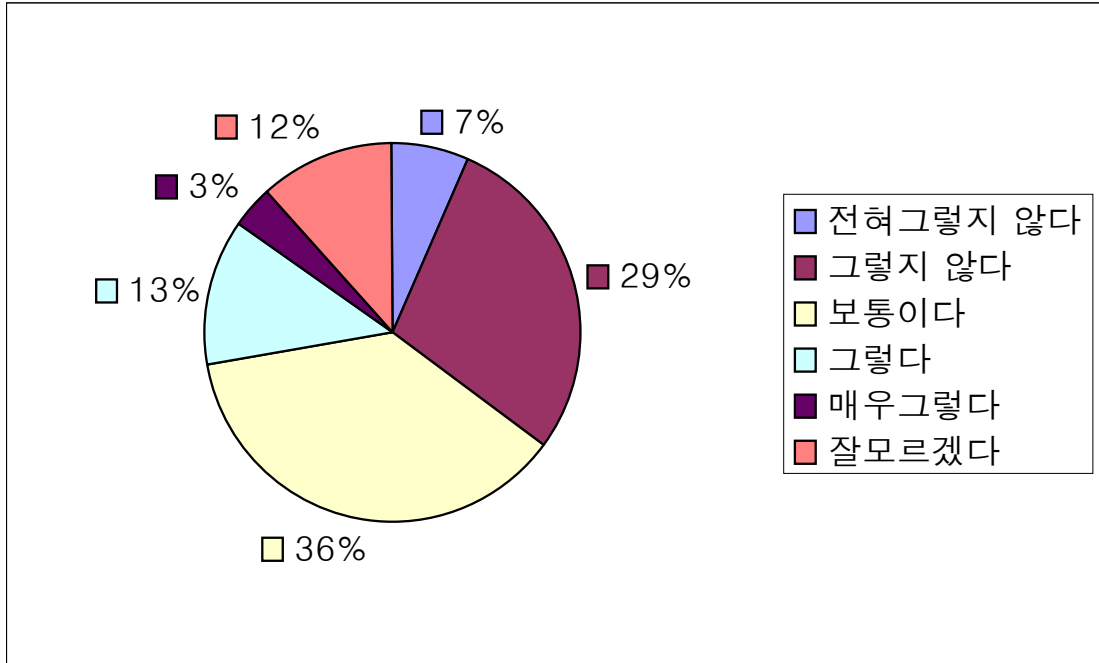
2. 설문 결과의 해석

오카리나의 학습 후에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보았다.



<표 6> 오카리나 학습 중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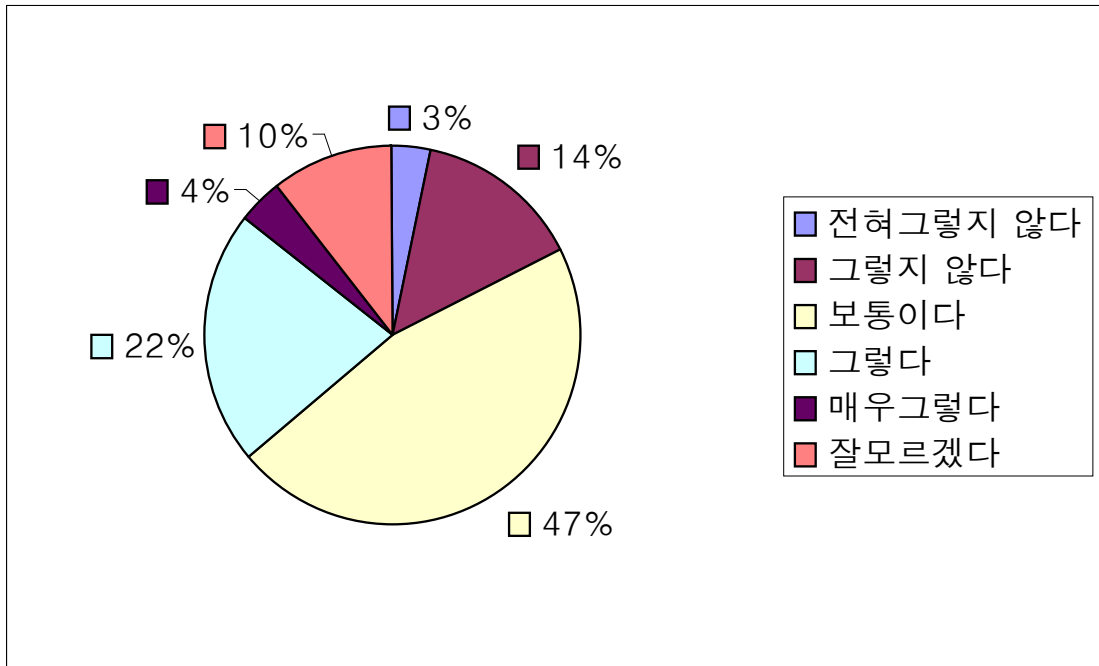
“오카리나를 처음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호흡이 어렵다는 학생이 28%로 가장 많았고 비슷하게 음정처리가 안 된다는 학생이 27%였다. 운지법이 불편하다는 학생이 25%, 소리가 잘 안 난다는 학생이 18%였다. 어려운 점이 없다는 학생은 1%로 극소수였고 잘 모르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73%의 학생이 한두 가지씩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모든 음악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호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다.



<표 7> 오카리나와 리코더의 운지법과 텅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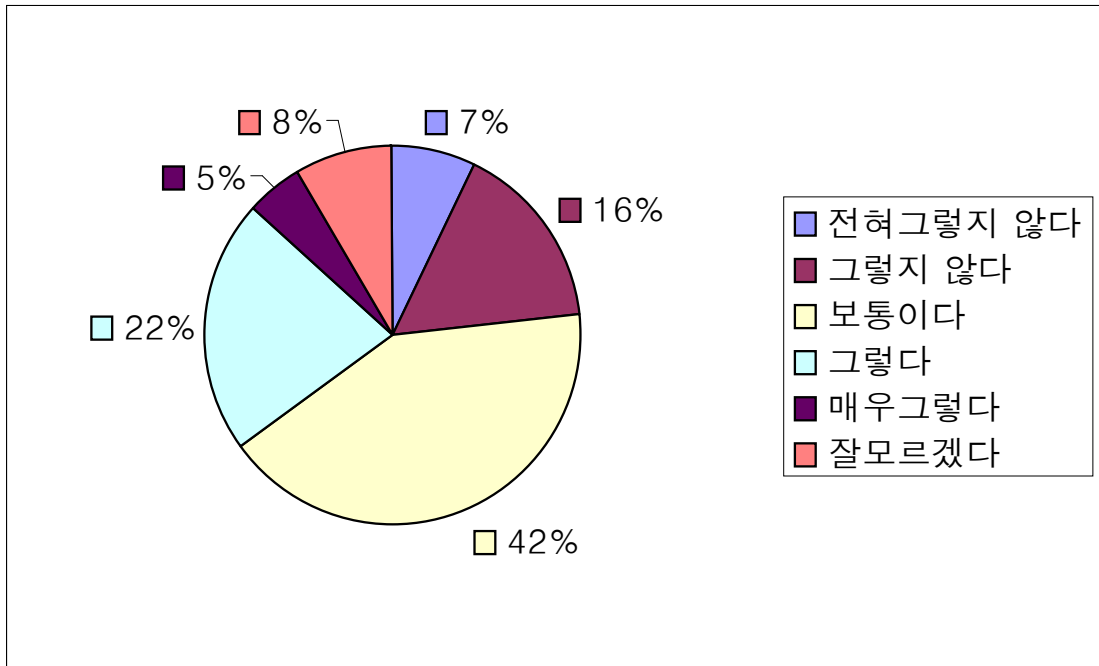
“오카리나의 운지법과 텅잉이 리코더보다 쉽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보통이다’ 라고 답한 학생이 36%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학생이 2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렇다’ 라고 답한 학생은 13%, ‘잘 모르겠다’ 라고 답한 학생은 12%, ‘매우 쉽다’ 고 답한 학생은 3%에 그쳤다.

이를 통해 오카리나의 운지법과 텅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대다수임을 알게 되었고 좀 더 효과적인 학습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표 8> 오카리나와 합주

“오카리나가 다른 악기와 합주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47%의 학생이 ‘보통이다’ 라고 답하였다. ‘그렇다’ 라고 답한 학생이 2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학생은 14%, ‘매우 그렇다’ 라고 답한 학생은 4%,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3%로 그쳤다. 97%의 학생은 다른 악기와의 합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표 9> 오카리나 수행평가의 난이도

“오카리나로 시험을 볼 때 난이도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42%의 학생은 ‘보통이다’ 라고 답하였고 ‘그렇다’ 에 답한 학생이 22% 로 나왔다. 16%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하였고, ‘잘 모르겠다’ 가 8%, ‘전혀 그렇지 않다’ 가 7%, ‘매우 적합하다’ 에 답한 학생이 5%로 가장 적었다.

3. 효과적인 오카리나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지도내용	학습효과
1단계	오카리나의 이해와 바른 연주자세	오카리나라는 악기에 대한 동기유발
2단계	기초악전 및 바른 호흡법	계이름, 음표와 쉼표의 길이의 이해 및 바른 호흡법 익히기
3단계	1옥타브 운지법 연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이름의 운지법 익히기
4단계	동요연주	쉬운 동요 곡 연습 및 연주로 운지법 익히기
5단계	텅잉연습	정확하고 좋은 소리 만들기
6단계	연주주법 익히기	여러 가지 연주 주법 익히기
7단계	저음, 고음 및 반음 연습	낮은 시(b), 라(a), 높은 레(d), 미(e), 파(f)의 운지법과 파#(f#), 시b(bb) 운지법 및 바른 호흡법으로 깨끗한 소리 만들기
8단계	쉬운 곡 연습	여러 가지 연주기법을 활용하여 곡 만들기
9단계	개인별 연주곡 지정 및 연습	학생 개개인의 연주 실력에 알맞은 곡을 선정하여 연습
10단계	복식호흡과 텅잉연습 총 복습	쉬운 곡 연주를 통하여 복습
11단계	여러 가지 연주법 익히기	여러 가지 연주법과 운지법 복습 및 새로운 연주법 익히기
12단계	모듬별 앙상블 연습	모듬원 간의 협동심을 발휘하여 합주연습하기
13단계	개인 및 모듬별 연주	개인 및 모듬별 앙상블 연주로 자신감 얻기
14단계	새로운 모듬별 앙상블 복습	새로운 모듬과 호흡 맞추기
15단계	반별 합주 연습	반원 전체의 합주를 통한 화음의 아름다움 느끼기 및 반별 단합하기
16단계	모듬별 앙상블 연습 및 연주준비	합주와 앙상블의 차이점 느끼기 및 연주준비
17단계	개인 및 모듬별 연주	개인 및 모듬별 앙상블 연주로 자신감을 얻고 악기의 친밀도 높이기

단원	기 악	차시	1/8	지도교사	이원미	
학습 목표	· 오카리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 도 단 계	학 습 요 소	교수·학습활동			관련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 전시확인 및 악기준비여부 확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카리나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①오카리나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형 (T자형 오카리나) - 원형 (랭글리형) ②오카리나의 각부 명칭 (유인물을 통해) · 구조 및 소리의 생성원리 · 올바른 연주자세 · 잡는 요령과 소리내는 법 					유인물
정리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					

단원	기 악	차시	2/8	지도교사	이원미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른손, 왼손 운지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호흡량과 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 도 단 계	학 습 요 소	교수·학습활동			관련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확인 및 악기준비여부 확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도’ 에서 ‘솔’ 까지의 운지법 : 일반적으로 소리내기의 발음은 [투(Tu)]로 하며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운지가 되어갈수록 조금씩 센 호흡으로 해야 한다. 특히 초보 때는 낮은 도의 정확한 음정을 내기 어려우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라’ 에서 ‘높은 도’ 까지의 운지법 : 운지구멍이 점점 많이 열리므로 고음부로 갈수록 호흡량을 늘려 연주한다. 하지만 호흡량이 너무 세면 음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음정을 생각하며 연주한다. 초보자의 경우 간혹 연주 시 ‘라 운지’ 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피아노 건반을 치듯이 책상위에 왼손을 올려놓고 익숙해질 때까지 약지 손가락만 올렸다 내렸다하는 반복연습을 한다. 호흡량과 음의 변화 : 오카리나는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이 약하면 답답한 소리가 나고 음이 떨어진다(b). 반대로 너무 강하면 ‘삐익’ 하는 파열음이 나거나 음이 올라간다(#). 정확한 호흡에 유의하여 연주하도록 해야 한다. 					‘낮은 도’ 음정에 특히 유의하여 연주하도록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 					

단원	기 악	차시	3/8	지도교사	이원미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른손, 왼손 운지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 기초호흡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 				
지 도 단 계	학 습 요 소	교수·학습활동			관련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확인 및 악기준비여부 확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른손, 왼손 운지법의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른손과 왼손의 운지법을 통한 각 음의 안정된 호흡을 연습하기 위하여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긴 박자로 연습한다. 이때, 처음과 끝의 음정이 일정하게 나도록 주의하여 연습한다. 양손의 손가락의 힘을 빼고 가볍게 펴서 운지하며 무엇보다도 음정에 유의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다장조(‘도’를 으뜸음으로 하는 장음계)음계의 연습을 통하여 오른손, 왼손의 운지와 각 음의 정확한 음정을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운지의 정확도를 위하여 거울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 기초호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아압’ 하는 발음으로 하되 숨을 내쉬며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시면서 짧게 호흡한다. 되도록 짧은 시간에 많은 호흡을 들이마실 수 있도록 연습한다.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호흡이므로 충분히 연습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 				

단원	기 악	차시	4/8	지도교사	이원미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음의 운지요령 및 소리내기에 대해 알 수 있다. · 악기지탱법과 꺾어붙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지 도 단 계	학 습 요 소	교수·학습활동			관련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확인 및 악기준비여부 확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음 소리내기 및 호흡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타브 차이의 운지를 통해 정확한 음정을 연습한다. 일반적으로 오카리나는 저음은 여리게, 중음은 보통으로, 고음은 세계 호흡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사람도 성별, 연령, 체질에 따라 개인차가 있듯이 자신의 악기에 맞는 호흡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서 본인의 호흡에 맞게 조절하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음에서 너무 세계 붙어 ‘삐익’ 하고 과열음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악기 지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꼬리를 말아 쥐는 법 - 꼬리를 끼워 잡는 법 - 꼬리에 기대는 법 <p>오카리나 특성상 지탱법이 바른 자세로 원활히 이루어져야 빠른 스케일의 곡이나 높은음의 트릴 등 장식음의 표현이 자유로워진다.</p> · 꺾어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의 청명함을 위해 고음에서 사용하는 주법으로서 다른 자세는 바꾸지 않고 고개만 숙이면 된다. 즉 상체를 바르게 유지한 채로 턱만 몸 쪽으로 당긴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 				

단원	기 악	차시	5/8	지도교사	이원미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음의 운지요령 및 소리내기에 대해 알 수 있다. · 저음 호흡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지 도 단 계	학 습 요 소	교수·학습활동			관련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확인 및 악기준비여부 확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음 ‘시, 라’ 의 운지요령 및 소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시’ 음은 오른손 중지를 밀어 막는 형태로 운지하며 소리내기의 발음은 약하게 [두(Du)]하여 연습한다. ‘낮은 라’ 음은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동시에 밀어 막는다. 이때 오른손 검지와 중지는 음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악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밀착된 채로 밀어 막는 것이 중요하다. 소리내기의 발음은 ‘낮은 시’ 보다 약한 호흡으로 부드럽게 [도(Do)]하여 연습한다. · 저음 호흡법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적은 양의 호흡으로 악기내부를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한다. 각 음정에 맞는 기준의 호흡보다 오카리나를 세게 불면 음정이 무조건 올라가므로 정확한 음정을 위해서는 바르게 호흡해야 한다. 부드럽고 여린, 절제된 호흡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 				

단원	기 악	차시	6/8	지도교사	이원미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흡의 세기와 음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저음부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지 도 단 계	학 습 요 소	교수·학습활동			관련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확인 및 악기준비여부 확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흡의 세기와 음정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음에서 고음부로 갈수록 호흡량은 증가한다.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각 음의 음정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음부를 신경 써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 저음부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음 시, 라’는 악보 상에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운지와 호흡이 까다로워서 초보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리도 말과 같아서 말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글자를 이루듯, 소리도 각 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음악을 만든다. 물론 음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음부는 인간의 감성을 어루만져 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고음부는 어느 정도 세계 불면 익숙해지지만, 호흡을 최대한 부드럽게 절제해야 하는 저음은 오카리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오카리나의 특음은 저음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수목화에서 느낄 수 있는 여백의 미처럼 절제된 호흡에서 소리의미를 맛보도록 하자.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 				

단원	기 악	차시	7/8	지도교사	이원미
학습 목표	· 복식호흡에 대해 이해하고 복식호흡을 통한 호흡연습을 할 수 있다.				
지도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활동			관련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 전시확인 및 악기준비여부 확인				
전개	<p>· 복식호흡의 이해</p> <p>-복식호흡이란 몸에 힘을 빼고 가슴을 자연스럽게 편 뒤 숨을 깊숙이 들이마셔 횡격막을 수축·이완시키는 호흡법이다. 마찬가지로 오카리나도 다른 관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복식호흡을 기본으로 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흉부가 팽창되고 횡격막은 내려가 폐는 공기로 가득 찬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흉부가 수축되고 횡격막은 올라가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간다.</p> <p>· 복식호흡을 통한 호흡연습(Long-Tone)</p> <p>-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복식호흡의 쉬운 예는 아기가 잠들어 숨을 쉬는 행동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워있을 때 복식호흡을 한다.</p> <p>-복식호흡의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리를 곧게 펴고 선다. 2) 손을 배에 두고 숨을 들이마신다. 3) 이때 가슴과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한다. 4) 들이마신 호흡을 몇 초간 멈춘다. 5) 천천히 배에 힘을 주고 내쉰다. 				
정리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				

단원	기 악	차시	8/8	지도교사	이원미
학습 목표	· 텅잉에 대해 이해하고 텅잉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지 도 단 계	학 습 요 소	교수·학습활동			관련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 전시확인 및 악기준비여부 확인				
전개	<p>· 텅잉의 이해</p> <p>-텅잉이란 연주 시 혀를 이용하여 오카리나에 숨을 불어 넣거나 끊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 소리내기 발음은 [투(Tu)]로 하며 처음부로 갈수록 부드럽고 약한 호흡으로 연주하며, 연주 기법에 따라 소리내기의 다양한 [투(Tu)], [토(To)], [호(Ho)], [티(Ti)] 등 많은 발음이 쓰이기도 한다. 한 음 한 음 구분지어 명료하게 해주기 위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p> <p>· 텅잉의 종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싱글 텅잉(Single Tonguing) : 가장 기본적인 텅잉 2) 더블 텅잉(Double Tonguing) : 빠른 패시지를 연주하기 위한 텅잉 3) 트리플 텅잉(Triple Tonguing) : 셋잇단음표의 빠른 패시지를 연주하기 위한 텅잉 4) 플러터 텅잉(Flutter tonguing) : 현대음악 기법의 한가지로서 혀를 굴려서 내는 특이한 주법 				
정리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				

IV. 결론 및 제언

오카리나는 악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소리를 낼 수 있어서 간단한 동요정도는 단시간 내에 습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난이도의 악기를 배우기 전에 음악적 표현활동을 하기에 충분하다. 음량 면에서도 기존의 교실악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리코더나 단소보다 풍부한 울림량을 보이면서 텅잉과 호흡을 학습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실시된 학교의 해당 교육청의 7차 교육과정에 따른 1인 1휴대악기 연주 등의 시행에 의한 후원아래 7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오카리나의 학습은 학생들의 악곡을 다루는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하기도 간편해서 언제 어디서든 악기를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향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카리나는 반음, 온음 뿐 아니라 많은 사이 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음악적인 표현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학습부진아로 구별된 학생들 중에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모든 학생이 음계와 간단한 동요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독려하면서 지도한 결과 7학년의 99% 이상이 오카리나를 한 곡이상의 교과서 수록곡을 연주 가능할 수 있었다. 이에 오카리나는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카리나는 다른 악기들과는 달리 음량도 풍부하고 따뜻하여서 학생들의 인성발달과 정서 함양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본질적인 음색이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여러 가지 악기들과의 합주 및 앙상블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오카리나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점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오카리나는 작고 귀여운 외관으로 학생들이 한 손에 들 수 있는데다 친근감을 형성하기 쉽고, 초등학교 시절에 학습한 리코더와 비슷한 운지법을 가지고 있어서 단시간 내에 학습하기가 쉽다. 일단 음계를 익히고 나면 간단한 동요 정도는 연주가 가능하므로 방학 중 과제로 운지법과 과제곡 한 곡을 제시했을 때 과제 완성률이 아주 높았다. 이로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오카리나는 7차 교육과정의 내용 가운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연주하기’ 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단소나 리코더 같은 악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악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권의 악기를 접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쉬운 제재곡부터 난이도가 있는 곡들을 교과서와 그 외 친숙한 동요들 중에서 선별하여 가르친 결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좋았다. 그 다음시간에 학습할 악보를 미리 프린트해서 배부하였을 때 집에서 선수학습을 해오는 학생이 많았다. 2부로 나뉜 곡들과 돌림노래 형식의 곡을 학습할 때에는 다른 파트와 어울리는 소리를 찾기 위해 좀 더 세심한 주의력을 갖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오카리나는 학생들의 자립심과 협동심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대표학생을 선정하여 독주를 하게 하였고 나머지 학생들은 독주학생의 연주를 듣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독주 학생은 뛰어난 연주를 했을 경우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본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연습할 수 있게 되었다. 감상하는 학생들은 독주학생의 연주를 감상하며 본인의 느낌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예민한 음악성을 갖게 되었다.

구분	제 6차	제 7차	비고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성 계발 · 창의적인 표현능력과 감상능력 함양 · 풍부한 정서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을 함양 1) 음악의 구성요소 이해 2)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신장 3) 음악의 역할과 가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의 음악교육을 통하여 학습자가 성취해야할 능력을 중심으로 진술 · 인지적, 심동적, 정서적 영역을 균형있게 진술

제 6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육 목표는 가창과 이론 중심에만 치우쳐 있었다.²⁷⁾ 지금은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고 음악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전인적인 인간으로서의 양성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오카리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다양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교실수업에의 도입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보다는 많이 보편화 되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를 위해서 음악 교사들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도방법의 모색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7학년에 한해 보급되는 오카리나를 단기간에 학습하고 수행평가 함으로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악학습은 가창과 함께 하나의 다른 음악표현수단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가창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감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악지도는 리듬교육의 수단으로서 저학년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기악 합주의 경험을 통한 단체적 지도와 피아노나 오르간을 통한 개인적 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연주기능을 지도할 경우에는 학생의 특성에 따

27) 장호,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예솔, 2005, p.87.

라 악기를 선정하고 악기조작 기술 및 표현력을 가르치고 합주지도의 경우에는 자기 파트의 역할을 자각하여 연주함으로써 전체의 조화된 울림을 추구하고 지휘에 순응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²⁸⁾

기악수업은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연수가 있어야 하며, 1학기 또는 1년을 계획하여 수업의 일부분으로 지속적인 지도가 따라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식상해하지 않도록 교사 스스로의 수업자료개발 및 다양한 수업형태의 도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8) 류주욱. “지속성에 의한 기악수업”, 『교육마당 21』, 교육인적자원부(2004. 2)

VI. 참고문헌

1. 단행본

- 곽한병. 『여가문화론』, 대왕사, 2005.
- 류주옥. “지속성에 의한 기악수업”, 『교육마당 21』, 교육인적자원부 (2004. 2)
- 박봉규. 『즐거운 오카리나 완성』, 삼호뮤직, 2002.
- 유덕희. 『음악교육론』, 개문사. 1983.
- 이은성. “도예인의 손길이 빚어내는 천상의 소리”, 『음악교육신문』, 제353호, (2006, 4, 5).
-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1992.
- 장 호.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예술, 2005.

2. 학위논문

- 강갑원. 자극성·진전성 음악이 긍정적·부정적 정서의 유발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2.
- 권오륜. 음악 감상수업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2001.
- 남궁은옥. 교실악기로서 오카리나 활용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5.
- 박병민. 자연친화적 요소를 도입한 보육시설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건국대학교. 2005.
- 박재성. 음악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합창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1.

윤정아. 계발활동 프로그램으로서의 오카리나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2007.

이지향. 초등음악교육을 위한 오카리나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2005.

임나래. 효과적인 가야금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연간 교수,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6.

한경희. 생활음악문화에서 오카리나의 인식과 대중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6.

기타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육부 고시 제시 1997-15호)』,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인터넷 사이트

<http://music.cein.or.kr>, 2007년 11월 9일 검색.

<http://ocarina.tistory.com/> 2007년 11월 9일 검색.